

명사와 결합하는 -하다 구문

조윤경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The Construction of Hata combined with Nouns

Joh, Yoon Kyoung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약

기존의 연구들은 *하다*가 실체성 명사와 결합하느냐 혹은 비실체성(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전자를 중동사 후자를 경동사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그러나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제안된 “강제유형”이라는 생성기제를 도입하면 이 두 명사들과 결합하는 동사 *하다*를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사와 결합하는 경동사 *하다*의 어휘구조를 살펴보고, 이 동사가 요구하는 명사의 특성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1. 서론¹⁾

한국어의 *하다* 동사는 매우 다양한 기능과 의미로 사용된다. 대술어, 인용동사, 보조술어 등으로 쓰일 수 있으며, 명사 외에도 형용사, 부사와 결합하여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편의상 *하다* 동사가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만을 다루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논문들은 실체성 명사와 서술성(비실체성) 명사를 구분하여 다루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두 명사들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우선 실체성 명사라 함은 (1)에 나열된 것 같은 명사들을 말하며, 서술성 명사는 (2)에 열거된 명사들을 일컫는다.

- (1) 가. 밟하다, 머리하다, 나무하다
나. 컴퓨터하다, 피곤하다, 투원케이크하다
- (2) 가공하다, 발표하다, 토론하다, 이사하다,
심부름하다, 구경하다, 사냥하다, 등

(1)에서 (가)와 (나)로 나눈 이유는 우리말 단어에 뿐만 아니라 외국어에도 *하다* 동사가 매우 생산적으로 결합됨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사실 외국어 혹은 외래어의 실체성 명사의 경우는 우리말의 경우 보다 결합을 가로막는 제약이 더욱 약하다.

1)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언어정보 연구센터’가 지원하는 “한국어 술어 중심의 어휘부 의미구조” 연구 과제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신 이정민, 남승호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애써 주신 연구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연구들을 보면 *하다* 동사 앞의 명사가 실체성이나 서술성이나에 따라 *하다*를 경동사 혹은 중동사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임서현 & 이정민 (2001)에서 주장된 것처럼 실체성 명사의 사건성을 도출하는 데 '강제 유형'이라는 기제를 도입한다면 이 동사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주되게 밝히고자 하는 바는 명사와 결합하는 *하다*는 그 앞에 실체성 명사가 오건 비실체성 명사가 오건 간에 경동사라는 점이다. *하다* 동사가 자신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건성(eventiveness) 보충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앞서 경동사에 대한 정의 및 경동사가 쓰이는 구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스퍼센에 의하면 경동사란 의미 기능이 아주 약한 동사로 단지 시제나 주어와의 일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한다. 즉, 경동사란 그 자체로서는 술어적 '형식'밖에 갖추지 못하며, 의미역과 논항과 같은 술어적 '내용'은 다른 단어나 구에서 도출하는 술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경술어 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Ryu (1993)에서 다루어진 것처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4) i. 제 1구조: 발표를 하다
- ii. 제 2구조: 발표 하다
- iii. 제 3구조: 발표하다

제 1구조는 목적격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제 2구조는 목적격이 생략된 경우이다. 그리고 제 3구조는 하나의 어휘로 결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문에서의 분석과는 좀 다른 이유로 제 1구조와 제 2구조는 자유 변이라고 보고자 한다.

- (3)?이씨가 고아원에 그 옷을 기증을 했다.
- (4)?정부는 현대의 대북 사업을 금지를 했다.

위의 문장들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라고 분석되어 진다. 하지만 *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자체의 목적어가 목적격 조사와 함께 나타날 때 *하다* 앞의 명사는 목적격 조사 없이 사용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즉, "옷을 기증을 했다" 보다는 "옷을 기증 했다"가 더 듣기 좋고, "대북 사업을 금지를 했다" 보다는 "대북 사업을 금지 했다"가 더욱 자연스럽게 들린다. 이는 한국어가 이중의 혹은 다수의 목적격 조사를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제 1구조와 제 2구조는 자유 변이로 볼 수 있다. 즉 목적격 조사가 붙은 제 1구조는 복합 서술어를 이루는 것이며 제 2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는 없다. 이는 Grimshaw & Mester (1988)에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 바 있듯이 경동사는 격을 할당하되, 그 것은 논항 자리가 아니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제 2구조에서 제 3구조와 같은 한 단어로 결합된 형태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두 술어 사이에 의미적 결합력이 높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명사와 *하다*가 결합하는 구문에서 술어로서의 의미역을 할당하는 것이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술어가 따로 떨어져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기존 연구들의 장·단점

언어 보편적으로 많은 언어들이 경동사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은 언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Diesing(2000)은 Yiddish어의 경동사 *gebn* ('give'), *ton* ('do')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영어의 경동사(e.g. give, make, have, do, etc.)에 대해서는 Jackendoff (1974), Higgins (1974), Cattell (1984), Wierzbicka (1982)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Grimshaw & Mester (1988)는 일본어의 경동사 *suru*에 대해 연구하여 이후의 많은 논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어의 경동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

며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임서현 & 이정민 (2001), Ryu (1993), Chae (1997) Jun (2000).

2.1. 논항 전이 (Argument Transfer)

Grimshaw & Mester(1988)의 논의는 사실 일본어의 스루(suru) 동사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 주된 논점을 한국어의 하다의 경우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5) 경고(Agent, Goal, Theme)

하다()<acc>

⇒ 경고(Theme) + 하다(Agent, Goal)<acc>

위의 도식은 서술성 명사와 경동사 하다가 결합하여 사용될 때 앞의 서술성 명사의 논항이 하다에 부분적으로 전이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붙는 제 1구조만을 보았고,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는 제 2구조 혹은 제 3구조의 경우에는 명사의 전체 논항이 하다로 전이되어야 함을 밝혀 주지 못하고 있다.

(6) 철수가 선원들에게 태풍이 온다는 경고를 한다.

(7) *철수가 선원들에게 태풍이 온다는 경고를 한다.

(6)의 경우처럼 목적격 조사가 나타나는 제 1구조를 이룰 때에는 부분적인 논항 전이 만으로도 충분하지만 (7)에서처럼 일단 목적격이 생략된 제 2구조 혹은 제 3구조가 나타나면 하다에 결합된 명사의 논항이 모두 동사로 전이되어야 한다.

2.2. 첨부 작용 (Append Operation)

위에서 논의된 논항 전이의 단점을 좀 더 보완하여 Ryu(1993)는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의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이 (a)에 기술된 내용이 입력되었을 때 (b)

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첨부 작용을 제안하였다.

(8) a.

val		SUBJ <A>		COMPS 	⊕	<C>	
-----	--	----------	--	-----------	---	-----	--

b.

val		SUBJ <A>		COMPS <BIC>	
-----	--	----------	--	-------------	--

즉, 위의 도식을 하다 동사에 직접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어휘 구조를 그릴 수 있다.

(9) 하다

LOC		CAT		VAL		SUBJ <INP>		COMPS		CAT		HEAD noun[PRED+]		VAL		SUBJ <INP>		* <2>		
		cat		val																

위의 어휘 구조를 보면 COMPS 안에 기술된 서술성 명사의 논항들이 하다 동사의 논항이 됨을 알 수 있다. 이 구조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Grimshaw & Mester (1998)는 논항 구조의 이동만을 보여 주었던 데 반해 Ryu (1993)는 하다 경동사의 의미역 (CONTENT)이 앞의 서술성 명사와 단일화 된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었다고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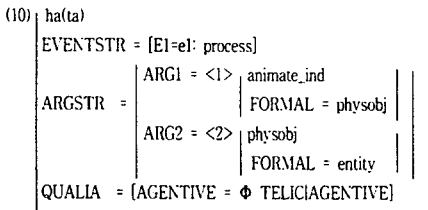
2.3. 공동합성 (Co-composition)²⁾

위의 두 논문들이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2) 공동 합성(Co-composition)이란

Pustejovsky (1996)가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생성 기제 중의 하나이다. (a) Mary baked the potato. (b) Mary baked the cake. 이 두 문장에서 동사 "bake"의 의미는 뒤에 오는 보충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a)의 문장에서는 상태변화의 개념 유형을 취하지만 (b)의 문장에서는 "cake"의 함수 작용에 의해 창조 개념 유형을 갖게 된다. 이 때 두 요소의 함수 작용 과정에서 특질 구조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다 동사를 주되게 다루었다면, Jun(2000)은 실체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동사 *하다*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주된 논점은 기존에 실체성 명사와 결합하는 *하다* 동사는 중동사로 분류되었지만, 공동 합성 과정을 살펴보면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하다*와 마찬가지로 실체성 명사와 결합하는 *하다*도 경동사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하다*의 어휘 구조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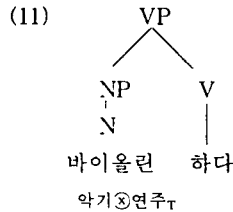


Jun(2000)은 *하다* 동사가 제 2 논항으로 취하는 개체 유형 명사의 특질구조³⁾ 중 작인역이나 목적역을 *하다* 동사의 특질구조에 수입(import)하는 함수 " Φ "를 도입하였다. 이전에 주장되었던 전이(transfer)나 첨부(append) 작용과 상이한 점은 *하다* 동사의 논항구조는 이미 채워져 있고, 특질구조만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 구조를 통해서도 목적격이 할당되는 경우는 논외로 여겨지고 있다.

2.4. 유형강제 (Type Coercion)⁴⁾

- 3) Pustejovsky (1996)는 특질구조(qualia structure)를 통해 어휘의 의미를 설명한다. 특질구조는 형상역(더 큰 범주에서 다른 어휘와 구별됨을 설명하는 역); 작인역(기원에 관한 역); 목적역(기능이나 목적에 관한 역); 구성역(대상과 구성성분과의 관계에 대한 역)의 4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4) 유형 강제 (Type Coercion) 또한 각주 (1)에서 잠시 언급된 공동 합성과 마찬가지로 Pustejovsky(1999)에서 생성의 기제로 제안된 것이다. 즉, "I enjoyed the movie."라는 문장에서 "the movie"는 단순히 개체 유형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watching the movie"라는 사건 유형으로 강제된다. 왜냐하면 "enjoy"라는 동사가 사건 유형만을 취

임서현 & 이정민 (2001)은 실체성 명사와 결합하는 *하다* 동사를 분석함에 있어 개체 유형(entity type)을 사건 유형(event type)으로 바꾸어 주는 유형 강제를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다음과 같은 도식을 통해 살펴보자.



*하다*가 바이올린과 함께 동사구를 이룰 때 바이올린의 개체유형은 사건유형으로 강제된다. 이 때 그 사건 유형은 바이올린의 특질구조 안에서 결정된다. 위에서 사용된 \otimes 는 특질구조에서 목적역이나 작인역을 직접 유형의 일부로 도입하는 기호로써 위의 경우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어휘 개념유형이 바이올린의 특질구조 중 목적역에 들어 있는 "연주"('play')라는 사건 유형으로 강제됨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다* 동사와 결합하는 실체성 명사가 개체 유형에서 사건 유형으로 강제됨을 전제한다면, 사건을 본래 취하는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하다"와 결국 같은 환경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서술성 명사 혹은 실체성 명사 뒤에 오는 "하다"는 본질적으로 강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실체성 명사와 결합하는 *하다*가 중동사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다음의 예(12.가)에서 바이올린 "연주"라는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12) 가. 철수의 바이올린
나. 철수는 바이올린을 한다.

하는 동사로 유형 강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예 (가)에서 철수의 바이올린 '연주'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유형 강제를 일으킬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하다* 경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하다*가 강제유형을 유발하므로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을 연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가)의 경우는 개체 유형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체성 명사가 *하다* 앞에 오는 데에는 서술성 명사의 경우 보다 더 큰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현상이 꼭 실체성 명사와 결합하는 *하다*가 하위범주화라는 큰 영향력을 갖는 중동사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개념 유형이 사건 유형으로 강제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봐야 한다. 즉, 실체성 명사 내의 특질구조에서 문장 내의 다른 단어의 의미와 또 더 넓게는 화용론적인 문맥 상황에 맞는 사건 유형을 끄집어낸다는 것에 따른 어려움일 것이다.

3. 새로운 제안

3.1. 경동사 *하다*의 어휘구조

Ryu(1993)는 명사와 동사 *하다*의 복합구문에서 명사는 의미와 사건구조 그리고 논항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고 *하다*는 시제와 상, 경어법, 문장 종류 등을 결정짓는다고 하였다. Chae(1997)는 경동사 *하다*는 목적격을 할당하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견해를 심분 받아들인다면 결국 "경동사"는 그 자체로써는 다음과 같이 매우 불완전한 어휘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text{ <하다(경동사)>}$$

$$\left| \begin{array}{l} \text{사건구조} = \left| \begin{array}{l} \text{사건 } 1=e1:\text{과정} \\ \text{사건 } 2=e2:\text{사건}[+\text{eventive}] \end{array} \right| \\ \text{논항구조} = [\Phi <ef1>] \\ \text{격구조} = [\text{격틀} = ef1=<x, <e2,t>>(_플)] \\ \text{특질구조} = [\otimes <ef1>] \end{array} \right|$$

우선 위의 사건구조는 *하다* 동사가 보충어으로써 취하는 명사를 하위범주화 함을 보여준다. 즉, *하다* 경동사는 사건성(+eventive) 혹은 사건성을 갖는 유형으로 강제된 단어나 어구를 취한다.

경동사 *하다*의 논항구조와 특질구조는 본질적으로 비어 있고, 사건성을 띠는 요소를 보충어로 끌어 쓸 때 그 사건의 논항구조와 의미구조가 이전된다. 각각 Φ 와 \otimes 기호는 Jun (2000)과 임서현 & 이정민 (2001)에서 사용되었듯이 수입 혹은 전이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투원케이크라는 실체성 명사가 어떻게 경동사 *하다*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우선 투원케이크라는 여성의 화장품 어휘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상될 수 있다.

(14) 투원케이크

$$\left| \begin{array}{l} \text{논항구조} = [\text{논항 } 1 = x: \text{화장품}] \\ \text{특질구조} = \left| \begin{array}{l} \text{형상역} = x \\ \text{목적역} = \text{바르다}(e.w.x)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위와 같은 개체 유형의 실체성 명사가 *하다* 경동사와 함께 쓰이려면 사건 유형으로 유형강제가 일어나야 한다. 이때 목적역의 사건성 개념이 채택되며 다음과 같이 *하다* 동사의 비어 있던 논항구조와 특질구조가 각각 Φ 와 \otimes 라는 함수에 의해 채워지게 된다.

(15) 투원케이크하다

$$\left| \begin{array}{l} \text{사건구조} = \left| \begin{array}{l} \text{사건 } 1=e1:\text{과정} \\ \text{사건 } 2= e2:\text{사건}[+\text{eventive}] \end{array} \right| \\ \text{논항구조} = \left| \begin{array}{l} \text{논항 } 1= w: \text{유정물} \\ \text{논항 } 2= x: \text{화장품} \end{array} \right| \\ \text{격구조} = [\text{격틀} = ef1=<x, <e2,t>>(_플)] \\ \text{특질구조} = [\text{작인역} = \text{바르다}(e,w,x)] \end{array} \right|$$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경동사 *하다*는 문장에 실현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는 어휘구조의 불완정성 때문에 쓰이지 않는다.

즉, 논항구조와 특질구조를 끌어올 수 있는 또, 사건성(+eventive)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충어와 함께 쓰일 때만 구문상에 실현될 수 있다.

3.2. 새로운 제안의 장점

우선 주목해 볼만한 점은 [PRED+] 혹은 [+eventive]¹⁾이라는 제약을 경동사 *하다*의 사건구조 안에 기술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서술성 명사뿐만 아니라 실체성 명사도 유형 강제를 통해 서술성을 가질 수 있다는 (2.4)에서 논의된 견해에 따라 *하다* 앞에 오는 명사들이 실체성 명사이건 서술성 명사이건 간에 [+eventive]라는 특성을 공유할 수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명사를 동반하는 *하다* 동사는 그 명사가 어떤 분류에 속하건 간에 공통적으로 경동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채회락 (1996)처럼 다음과 같은 비직관적인 분류를 할 필요가 없다. 채회락 (1996)에 의하면 *나무하다*, *뱃하다* 등에 오는 명사는 실체성이고, *틀니하다*, *머리하다*, *전화하다*, *편지하다*, *선물하다* 등에 오는 명사는 비실체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채회락 (1996)이 이러한 분류에 이르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경동사 *하다*를 생략하고도 서술적인 해석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이다.

(14) 가. 김대통령 어제 고향에서 일

나. *김대통령 어제 고향에서 떡

5) Ryu(1993)은 [+PRED]라는 제약을 사용하였고, Diesing(2000)은 경동사와 결합하는 조건을 eventiveness라고 주장하였다. 둘다 경동사가 서술성 혹은 사건성의 성분과 결합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후자로서 “하다” 어휘가 같은 제약을 설명한 이유는 “하다”가 상태, 과정, 혹은 반복적 과정 등의 “사건성”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는 신문 표제 등으로 쓰였을 때 자연스러운 반면 (나)는 어색하며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모호하다. 이는 채회락 (1996)에서 떡과 같은 실체성 명사뒤에 생략된 *하다* 동사가 중동사임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로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나)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떡의 서술성을 이끌어 낼 기능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2.4.)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던 것처럼 떡이라는 개체 유형의 명사는 사건 유형으로 강제 시켜줄 수 있는 기능어와 함께 쓰일 때만이 서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채회락 (1996)에서 논의된 또 다른 분류기준으로 이중 목적어가 가능하면 서술성, 가능하지 않으면 실체성이라는 분류기준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또한 애매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 문장의 문법성 판단 자체가 매우 확연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15) 가. 영화는 어제 신발을 선물을 했다.

나. *철수가 영어를 숙제를 한다.

이중 목적어가 가능한 (가)의 문장의 선물은 서술성 명사이며, (나)의 숙제는 또 다른 목적격 조사를 취하지 못하므로 실체성이라고 논의되었지만 (가)의 문장도 엄격하게 따지면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위 두 문장의 문법성 판단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류시중 (1995)에서도 주장되었던 것처럼, *하다* 앞에 오는 명사는 비록 실체성 명사라고 할지라도 일단 *하다* 앞에 쓰이면 비실체성 즉 서술적 의미를 갖게 된다. 다음의 예를 보면 *하다*가 쓰일 경우 *넌다*, *타다*, *가설하다* 등의 중동사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8)의 예에서 *전화한다*는 의미는 ‘전화를 걸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데 이때 쓰인 *걸다*를 보통 경동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6) 영화는 빨래를 널었다.
영화는 빨래를 한다.
- (17) 영화는 택시를 탔다.
영화는 택시를 한다.
- (18) 영화는 전화를 가설했다.
영화는 전화를 했다.

채회락 (1996:433p)도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어느 정도 경동사 *하다* 앞에 올 수 있는 성분의 기본 속성이 서술성 여부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술어 구문의 성립여부에 관해서는 [NP+하다]의 구조에서 명사가 실체적이냐 비실체적이냐는 구분보다 그 명사에 서술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강제유형을 통해 실체성 명사 또한 서술적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 *하다*는 경동사로 분석되어야 한다.

4. 결론

Grimshaw & Mester (1988)는 논항구조의 전이만을 논하였고, Jun(2000)은 특질구조 즉 의미구조의 전이만을 논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어휘구조에 따르면 경동사 구문이 논항구조 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앞에 오는 명사에 의존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경동사가 왜 홀로는 쓰일 수 없고, 사건성을 갖는 명사나 다른 요소들을 항상 동반하여야만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비실체성 혹은 실체성 명사의 분류에 상관 없이 명사를 동반하는 *하다* 동사는 서술적 요소를 하위 범주화 하며 목적격을 할당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경동사임을 밝혔다. 결국 *하다* 경동사 구문은 두 개의 술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보편적 현상을 살펴보더라도 명사가 술어로 활용될 때 서술성 명사뿐만 아니라 실체성 명사일 때에도 중동사의 성격에 가까운 단어나 어구가 따라 오기 보다는 형태소에 가까운 형식적 성분이 덧붙여짐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어를 보더라도 *-en*이라는 어말 어미가 붙는다. *Waffeln*(‘무기로 싸우다’)이 되며, 이러한 현상은 매우 생산적이다. 스페인어에서도 서술성 명사 뿐 아니라 실체성 명사가 술어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 때 “*ar*”라는 어미가 따라온다. *azucarar*(‘to put sugar’), *telefonar*(‘to make a telephone call’) 등이 그 예이다.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 실체성 명사가 중동사와 같은 완전한 단어와 결합하기보다는 접사나, 어말어미에 가까운 형식어와 결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어의 실체성 명사가 동사로 활용되는 경우는 Joh (2001)에서 제로 형태소가 덧붙여지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러한 언어보편적 현상이 시사해 주는 바는 실체성 명사를 술어로 활용시켜 주는 것이 의미적 무게가 있는 중동사가 아니라 단지 형식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기능어라는 점이다.

5. 참고문헌

- [1] 류시종 (1995) 한국어 보조 용언 범주 연구: 원형이론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 [2] 임서현 & 이정민 (2001) ‘한국어 실체성 명사와 동사 하-의 결합.’ 한국인지과학회 춘계대회
- [3] 채회락(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 구문’ *어학연구* 32.3, 409-476.
- [4] Chae (1997) ‘Verbal Noun and Light Verb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33.4, 581-600.
- [5] Grimshaw and Mester (1988) ‘Light Verbs and Theta-marking,’ *Linguistic Inquiry* 19.2, 205-232.
- [6] Joh, Y. K. (2001) *Innovative Denominal Verbs in English-A Semantic Analysis*.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7] Jun, J. S. (2000) *Semantics of*

Substantial Nouns-ha(ta) in Korean and its Implication about the Design of the Mental Lexicon. Ms. Brandeis University.

[8] Pustejovsky (1996)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IT Press.

[9] Ryu (1993) *Structure Sharing and Argument Transfer-An HPSG Approach to Verbal Noun Constructions.* Seminar for Sprachwissenschaft, Eberhard Karls University Tübingen